



사진출처 · hoseo.ac.kr

연대
신학교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펼쳐내게 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건학 이념 아래 세워진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는 신학교의 위기가 거론되는 오늘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학생들의 생기가 넘치고 있다. 이곳을 함께 세워가는 교수자로서 학교와 학과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우리 학과의 특징을 소개해 본다.



고유식 교수

theology.hoseo.ac.kr
yousikko@hoseo.edu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 학과장이며,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목회상담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다.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의 구성원이 되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 3월 첫날, 필자는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와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목회상담학과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하지만 등교하자마자 맞이했던 ‘학생이 보이지 않는 텅 빈 캠퍼스’와 ‘행한 연구실 복도’는 필자를 적지 않게 당황시켰고 박탈감과 무기력감 또한 겪게 했다. 대면 수업 전면 폐지로 인해 모든 강의실이 잠겨 있었고, 학생들 없이 책들로만 꽂차 있는 학교 도서관도 황량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수업이 가장 힘들었다. 줌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나마 내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수업할 수는 있었지만, 모니터를 통해서만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생동감이나 역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내가 인터넷 강의 강사인가?”라는 푸념과 한탄 섞인 질문이 교수들 사이에서 유행할 만큼 학생 지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고의 세월을 지나 코로나19의 기세가 약화되었고 드디어 2022년 봄 학기부터

수업 방식이 대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때부터 필자는 더 이상 인터넷 강의 강사가 아닌 교수임을 느낄 수 있었다.

2022년 가을학기 시작 한 달 전인 8월 1일, 필자에게 기독교학과 학과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졌고 그때부터 필자는 기독교학과의 살림을 전담하는 엄마 같은 존재가 되었다. 학생들의 갈등과 고민을 직접 마주해야 했고, 밀려드는 그들의 요청을 전부 수용하고 처리해야 했다. 필자가 좋아하는 독서와 글쓰기는 점차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으며 보고서와 계획서 작성이 앞자리를 차지했다.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무수히 쏟아지는 행정 사무에 지치기도 했다. 입시 시즌에는 상상도 못 했던 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신학과 기독교학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교단 신학교들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버거운 상황임에도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는 계속 정원을 충족시키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다양한 관점을 통해 본 신학을 배울 수 있는 초교과 신학교라는 점,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의 존재감, 각 교단을 대표하는 교수들의 헌신과 노력이 현재 교계와 신학계에 닥친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용기의 원천이지만, 기독교학과의 학과장이 받는 스트레스도 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가 받는 스트레스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필자가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를 많이 아끼고,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고민하다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건학 이념 아래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자 하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느끼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마음을 바치려는 학생들에게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는다. 또한 호서대학교 현 총장이자 기독교학과 및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강일구 박사의 호서 교육 강조점인 ‘기독교 정신과 벤처 정신’, ‘하나님 공경, 진정한 자기 사랑’은 기독교학과의 교육 목



사진제공 · 교육식

표를 더욱 공고하게 한다. 특히 특정 교단의 교리만이 아닌 다양한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신학과 목회 지향성의 틀을 형성하도록 교육함이 바로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가 추구하는 교육 목적이다. 우리 학과에서는 제도적으로 매 학기 강의뿐만 아닌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교육과 학생 지도에 적용하는데, 이 제도로 인해 전공 교육과정과 전공 역량 강화 및 개발, 그리고 학생들의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닌, ‘목회 여정에 들어서려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길 원할까?’,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교육 및 지도에 매진하고 있다.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는 신학 역량뿐만 아니라 인성 역량과 관계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로운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가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봄 학기에는 학과 내 모든 학생들이 2박3일 동안 ‘영성과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적 훈련에 매진하고, 일 년에

두 차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에 실시하는 ‘농촌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 목회를 직접 체험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통찰을 얻는다. 물론 교수들은 학생들과 모든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며 학생들의 고충과 갈등, 문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학생을 위한 돌봄에 헌신한다. 학생들은 학과와 교수들의 헌신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목회 실천에 적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물론, 졸업한 학생들도 모두 대학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영성과 수련’, ‘농촌 전도’라 꼽는다.

우리 기독교학과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신학 지식만이 아닌 현장 목회에서 필요한 요소들과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영적 건강을 위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막상 목회 현장에 나오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하등 쓸모없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지만,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졸업한 목회자들은 이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를

배우고, 익히고, 펼치려는

제자들의 기쁨으로 늘 충만합니다.

“교수님, 보고 싶었어요!” 매일 만나도 이토록 나를 격하게 반겨주는 학생들을 통해 예수님 사랑의 의미와 깊이를 느낀다. 때문에 ‘지금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교수의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닿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오늘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고유식 교수 | 월간목회 2024년 1월호

학생들에게 양질의 신학 교육, 실질적 목회 교육, 진실한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교수의 관점으로 학생들을 바라봄이 아닌 학생들의 관점으로 학생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이를 위해 교수의 자리에서 학생들을 지도함이 아닌 학생들의 자리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교수들은 각자 학생들과 수업 외 시간에 ‘성경 통독’, ‘심리상담’, ‘청서 세미나’ 등 다양한 비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심히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기독교학과 울타리 안에서 매일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다

일전에 2024학년도 입학 수시 전형을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하고자 학생들이 필자의 연구실에 찾아와 카메라 앞에서 학과 소개 및 수시 입학 지원자들을 위한 격려의 말을 해달라 요청했다. 필자는 그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학과를 ‘사랑이 많은 학교 속 아름

다운 학과로, ‘내가 만약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 내가 정말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과로 소개했다. 멘트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수식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갑작스러운 학생들의 요청에 아무 준비 없이 필자의 입에서 이러한 말들이 튀어나왔다. 아무런 꾸밈없던 필자의 솔직한 답변이 바로 ‘내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이자 학과’였다. 사실 이외에 더 이상 달리 할 말이 없는 필자의 진실한 마음이었다.

오늘도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는 복도에서 1학년 학생들이 왁자지껄 필자를 맞이한다. “교수님, 보고 싶었어요!” 사실 어제도 봤었고, 그제도 봤었는데, 필자를 몇 달 못 본 사람인만큼 달려와 반가운 인사를 외친다. 필자가 그렇게나 반가운가 보다. 물론 필자도 반갑지만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하하하! 나도 반가워요. 그런데 우리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는데...”라고 얼버무리는데, 그런 필자에게 학생들은 “네,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교수님! 오늘은 처음 보잖아요.”라고 한다. 사실 학생만 교수에게 배우는 것이 아



사진제공 · 교유식

니다. 교수도 학생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참 많다. 매일 만나도 그렇게 필자를 격하게 반겨주는 학생들을 통해 필자는 예수님 사랑의 의미와 깊이를 느낀다. 아무리 격해도 부족함을 느껴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처럼, ‘학생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내 마음을 표현했으면 학생들이 만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보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돌보고, 사랑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교수의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온전히 학생들에게 닿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필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한다.

멋진 전도자를 키워내는 선지 동산이기를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를 향해 나아간다. 많은 학생이 목회자의 꿈을 꾸며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학, 경영학, 한국어학 및 영문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청소년문화상담학을 복수 전공하여 자신이 소망하던 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 나서기도 한다. 이 점이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가 종합대학에 속

한 학과로서 갖는 최대 장점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이 아닌 그의 행동을 파악하라.”라고, “그의 말이 아닌 그의 말속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라.”라고 가르친다. 필자가 이렇게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에 대한 글을 쓰면 아무리 논리적-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 썼다고 해도 필자는 이 학과의 교수이자 동시에 학과장이기에 이 학과의 긍정적인 부분만 소개하게 되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다. ‘정말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아닌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서 더 좋은 학과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처럼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의 모든 교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다면,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혁신과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필자는 호서대학교 기독교학과의 신학의 열기가 주춤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전파하는 멋진 전도자를 키워내는 선지 동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